증권

업무분야

금융회사들이 혁신적인 상품을 출시함에 따라 그에 대한 규제환경 역시 보다 복잡해지고 있기에 위험부담도 동시에 수반됩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증권팀 전문가들은 국내 유수의 기관, 상장기업, 투자자들과 더불어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쌓은 오랜 실무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금융기관과 관련된 각종 규제 이슈 및 금융거래 수행 등에서 효율적으로 고객을 자문해 왔습니다.

증권팀에서는 외환거래, 구조화 금융, 파생상품,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국내외 기업공개 및 주식발행, 주식예탁증서,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회사채, 변동금리부채권, 변동금리부예금증서 등 관련 업무에 대하여 최적의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사례

- KIKO 파생상품거래 손해배상 청구사건
- 은행 등 금융기관, GE, 이랜드, CJ케이블방송국, 동양그룹 등이 주도한 각종 유형의 자산유동화(대출채권, NPL, 부동산 등)
- 수협, 하나은행 등 금융기관 주도의 선박금융
- 쏘시에떼 제네랄 은행 신용장 분쟁 사건
- 무역보험공사의 선박금융 관련 자문
- 예금보험공사와 하나로저축은행 사이의 계약이전손실보전금(공적자금) 분쟁 사건
- 비씨카드와 뉴코아백화점 사이의 매출채권양도 분쟁 사건(비씨카드 vs 뉴코아)
- 해수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계약이전명령 취소사건
- 주식보호예수위반 관련 분쟁 사건
- 자본시장법상 대주주의 단기주식매매차익반환 청구사건
- 삼성증권, 동양증권 펀드 및 금융 관련 사건
- Deutsche Bank의 진로그룹 NPL 거래 및 도산절차 관련 업무
- JP Morgan과 국내 금융기관들 간의 태국 바트화 연계 파생상품 관련 소송 및 협상
- SK E&S의 코원에너지서비스 상장폐지 절차 및 법률문제 자문

최근업무사례

[금융경제범죄 및 금융규제 대응] 중징계 통보된 증권사 대표이사에 대해 금융감독원 제재심 단계에서 경징계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민사] 당사자 쌍방의 확약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성립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여 계약불성립을 인정받은 사례

[금융·민사]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대상회사의 상장폐지가 있었음을 이유로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제를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확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